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프로이트 전집 완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정립 100주년 맞아... 전20권으로 발간

최근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자로나 제대로 된 번역서의 절대부족으로 막연하게 난해한 이론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정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의 사상과 이론을 보다 올바르게 알려려는 작업이 시도돼 주목된다.

한국 정신사학계의 사건

열린책들(대표 홍지웅)이 3년여의 노력 끝에 <프로이트 전집> 전20권을 완간, 2천질을 펴냈다. 번역비에서 제작비까지 총4억원을 들여 완간한 이 전집은 한국 학술 또는 정신사학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홍사장은 "그동안 미미했던 프로이트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론을 정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완간 소감을 밝혔다.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정장진(고려대 불문과 강사)씨는 "용어집이나 서간집이 함께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전집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후속작업이 진행되면 출간 의의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동안 프로이트에 대한 연구와 이론서 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정통 프로이트 전공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번역된 이론서 출간은 오히려 용

현대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친

프로이트의 전집이 완간돼

한국 정신사학계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그의 사상과 이론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연구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집·서간집 등

후속작업도 기대된다.

어의 혼란을 가져와 독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특히 최근 프로이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라캉에 의해 재해석된 이론의 유입을 통해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한 열린책들은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가지 일을 추진했다. 먼저 기본 번역판본을 프로이트 전집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독일 피셔사의 <전집>과 영국 호가스사의 <표준판 전집>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요한 용어를 통일하여 해당 번역자에게 배포했다. 또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계의 권위 있는 학자로 번역진을 구성했다. 종합이론서는 심리학 또는 철학 전공자에게, 히스테리 또는 정신질환 증례를 다룬 글은 직접 환자를 다루고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건



해를 피력한 글은 문학평론가에게 의뢰했다.

다각적인 기획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스무명이나 되는 번역자가 각자의 몫을 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난제였다. 번역에 참여했던 박찬부 교수(경북대 영문과)는 "중구난방식으로 쓰이던 용어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전집 완간의 또다른 의의"라고 평가했다.

인간내면 강조한 이론 답아

현대사상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가져온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8)는 마르크스와 함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손꼽히고 있다. '정신분석'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참조틀을 제공했던 그는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정신, 꿈 혹은 무의식을 통해 인간 자체를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

이성적 사고에 대한 무례로 평가절하된 그의 이론은 온갖 견제와 질타를 받았지만 이후 생성되는 사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다. 철학·의학·예술·문학·건축·사회학 기타 분야에 그가 사용했던 어휘와 사고는 깊이와 관련 정도에 상관없이 담론을 거치면서 변형 또는 심화되었다.

이번 전집 가운데는 이론서 중에 백미로 손꼽히는 <정신분석 강의>(임흥빈, 고려대 교수·홍혜경, 전문번역가)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꿈의 해석>(김인순, 독문학 박사)이 들어 있다. 그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론서들은 인간의 정신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정신분석의 기초적인 영역을 나누고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역작이다. 자연과학에 대한 믿음을 정신현상

문화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구촌 현장

기 소르망 저음 <열린 세계와 문명창조>

프랑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기 소르망의 <열린 세계와 문명창조>가 번역되어 나왔다(박선 옮김). 기 소르망은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체제가 인간에게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자유주의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적 다원론과 자유기업의 형태로 인간의 진보를 촉진하는 보편적 개념의 세계화를 위해 논쟁을 펼친다.

세계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남과



북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폐기되거나 구시대적이라고 파악하는 저자는 사회주의 체

제가 붕괴된 이후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현장을 둘러본다. 이스탄불, 라페루즈 해협, 비글 운하, 38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브루클린의 도로, 중국의 만리장성, 베를린 장벽, 사라예보와 예루살렘 등이 그곳이다. '신이 없는 신정정치체제'로 파악한 북한도 담겨 있어 흥미롭다.

저자는 세계화가 실제로는 미합중국의 제국주의인 '미국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맥몽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전 세계의 몸과 마음의 양식을 생산하는 매킨토시(Macintosh)와 맥도널드(McDonald)의 머리부분을 딴 프랑스어와 영어의 신조어다. 맥몽드는 미국적 제국주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유

럽·캐나다·호주로 그 외곽지역을 구성하는 서양의 캠프다.

미국화된 세계화는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수용할 만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앗아가면서 세계를 더욱 빈곤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맥몽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명 중심축, 그리고 중국·한국·일본을 합한 아시아 중심축이 창조되어 3대 중심축이 공존할 때 새로운 문명이 가능해진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맥몽드와 고유한 민족문화 사이에서 다른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하는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박천홍>

한국경제신문사/A5신/428면/13,000원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위한 보물창고

레나 솔의 CGI 스크립트 자료실

최종수 · 인터넷 컨설턴트(webmaster@literature.co.kr)



맥밀런 출판사가 후원하는 CGI 스크립트 자료실 화면.

의 분야로 확장시킨 면모 또한 추적할 수 있다. 이론의 보충을 위해 정신분석의 개념을 실제 치유에 이용했던 결과를 토대로 기술된 《히스테리 연구》(김미리혜, 덕성여대 교수), 《늑대인간》(김명희, 신경정신과 의사),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김정일, 신경정신과 의사) 등도 있다. 《쾌락 원천을 넘어서》(박찬부),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황보석, 전문번역가) 등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발전시킨 이론서이다.

예술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는 무의식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상에 대한 분석이론으로 《예술과 정신분석》(정장진)을 펴냈다. 정신분석의 측면에서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감상해야 하는가,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설명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에서 어머니에 대한 집착과 동성애적 경향에 대해 밝히며 작품들이 어떤 심리적 상황에서 묘사되었는가를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 사회의 제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그는 문명적 제약과 요구의 대립관계를 논제로 하여 인류의 강박 정신증인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문명화된 인간이 느끼는 죄의식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문명 속의 불만》(김석희, 전문번역가)과 《종교의 기원》(이윤기, 전문번역가) 속에 밝히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론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이론에 대한 반론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자신과 함께 시작했다가 다른 흐름으로 갈려 나갔던 칼 융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전개했다. '정신분석학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 《정신분석 운동》(박성수, 해양대 교수)이 바로 그것이다. 《나의 이력서》(한승완, 철학박사)는 정신분석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다.

우리 정신사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프로이트 전집 출간에 독자의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전집 중 제7권은 재판을 찍었다. 미진한 부분은 판을 거듭하면서 보충하겠다는 홍사장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제대로 번역된 전집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며 독자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 오완진 기자

누구나 한번은 인터넷에서 '정보사냥'이라는 것을 해봤을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원하는 정보가 발견되면 황재라도 한 기분일 것이다.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약간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돈 들여 정보를 올린 사람의 동기가 왠지 미심쩍기도 하다.

과연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인류에 불타는 너그러운 자선가들일까?

여기쯤에서 우리는 인터넷 정보의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은 정반대에 놓여 있게 마련이다.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돈이나 그와 비슷한 뭔가를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넷에서 퍼다쓰는 정보 역시 그러한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우리 출판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에서 새로 나온 책에 대한 검색이다. 많은 출판 기획자들이 인터넷을 터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은 해외 신간 도서와 외국작가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가 처음에는 무료였겠지만, 나중에 새로 나온 책의 판권을 구입하고, 외국 작가에게 인세를 송금함으로써 그 정보의 사용료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 제공자에게 지불되고 만다.

과연 어떻게 하면 정보의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정보의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당장의 문제는 돈과 기술일 것이다. 그리고 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에 따르는 돈과 인력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웹에 실제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본 사람이라면, 웹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그다지 돈드는 일도 아니고, 고정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말하곤 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저작 도구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용법은 약간의 외국어 소양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이트는 인터넷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구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들어 있는 곳이다. 이 사이트는 애당초 www.eff.org에서 운영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접속자들 때문에 서버가 부하를 견디지 못해 폐쇄되었다가, 맥밀런 출판사에서 이 사이트만을 위해 서버와 T1급 인터넷 회선을 후원함으로써 다시금 www.extropia.com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미

러링(mirroring)하는 사이트들도 세계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인터넷을 신기하게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소스들을 대부분 찾을 수 있다. 어느 사이트에나 있는 '방명록'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게시판'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전자 메일, 웹광고, 심지어는 인터넷 소풍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마주치게 되는 화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사냥으로 일컬어지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웹을 통해 정보를 배포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웹을 바라봐야 할 때가 이미 온 것으로 보인다. 웹을 터득하기 위해 지금까지 들었던 노력만큼을 다시 한번 더 들이면 웹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에서 판매자의 위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숨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